

□ 기획연재 □

컴퓨터 과학 산책(18)

초고속 서비스의 거품 거두어 안기

광운대학교 조국현*

몇 년간 거품경제란 말이 매스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서 우리들의 오감의 육감을 자극시켰다. 여기서 거품이란 뜻은 반드시 역기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닐진대 모든 사람들은 거품에 대하여 알레르기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웃 일본에서는 거품경제 탓에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였고, 소시민들의 주식투자와 은행이자로 누려오던 혜택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경제계가 이 거품을 하루 빨리 제거하고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한 제도 등의 지원과 정책 등을 내놓으면서 거품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현실도 크게는 이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그렇다면 경제계에 나타났던 거품은 단지 경제현상일 뿐일까? 물론 모든 현상이 최종적으로는 화폐가치로 인식되고, 이 인식이 우리들의 피부에 더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다고 이와 같은 노력을 포기할 수만은 없다. 정확한 문제의 진단과 장기적인 기반의 확충과 나아가 시민정신 등이 승화되어 언젠가는 쾌적한 교통환경속에서 적절한 속도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소위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란 이름 하에 나타나고 있다. 미 부통령 고어가 정보고속도로를 주창한 이래 선진국들은 정보화 기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재빨리 뛰어들어 이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물론 범정부적인 추진체계와 해당 부처의 노력이 불철주야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화롭지 못하고, 단발성이며 허구적인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환상의 시험대

1. 초고속이란 환상

우리가 늘 체감하면서 빨리 해결되도록 절실히 바라는 것은 교통문제이다. 제한된 도로라는 자원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현상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 간선도로니, 고속전철이니 하는 해결책도 파헤친 사거리, 울퉁불퉁한 도로, 한수 더 뜬 건설 당사자들의 비양심 등이 비빔밥이 되어 혼돈만 거듭되는 느낌으로 이어진다. 그렇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정보통신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귀에 익은 많은 관련 용어들이 있다. 이른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초고속 시험사업, 초고속 선도사업, 초고속 테스트베드, 초고속 서비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초고속이나 멀티미디어를 수식어로 하는 많은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시험사업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재판 등이다.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오지나 섬에 갑자기 첨단장비와 함께 호화로운 테이프 컷팅행사가 요란하게 치러진다. 주민들은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리둥절

*중신회원

해지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대형화면에 나타난 장면들을 호기심을 갖고 쳐다본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도 똑같은 화면만 반복될 뿐이고 새로운 교육서비스도 나타나질 않고 첨단장비에는 뽀얀 먼지만 쌓여간다. 원격의료도, 원격재판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도시험망도 마찬가지다. 현재 일부대학에 선도시험망이 갖추어져 있다. 대기업에서는 이 대학들에 각종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통신 사업자는 고속통신망 정확하게는 전송선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어떤 이유에선가 폐쇄되어 있다. 어떤 서비스를 시험하려고 해도 또는 개발하려고 해도 지정된 공간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말로만 개방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는 당사자간의 또는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폐쇄되어 선도시험망이 의미하는 순수한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많은 초고속 서비스 또는 선도시험망 등이 일회용행사이며 소모적인 투자로 전락되어 본래의 뜻을 저버리면서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다양한 초고속 서비스가 곧 내게도 혜택이 돌아올 것 같은 기대감만 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거품만 잔뜩 만들어 실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

3. 거품만들기와 거두어 안기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언급한 거품들이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적절한 만큼의 거품은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도움이 된다. 거품차체가 과다하지 않으면서 세인의 관심대상이 되고, 많은 관심속에서 실체가 나타나고, 나아가 우리들 생활의 일부로 정착되면서 정보화 시대에 순응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발전단계를 하나 하나 거쳐가는 수밖에 없다. 정보사회는

기술, 서비스, 환경, 홍보 및 관리 축이 있게 마련이고 초기, 중반기 그리고 안전된 단계로 발전되어 간다. 정보화 사회들의 발전은 각축간의 상호관계를 잘 파악하여 조화로운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은 전문가들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환경과 홍보가 중요한 지침이 될 수도 있다. 환경이란 법과 제도 등을 포함한 여건정비를 뜻하는 것이고, 홍보란 정보화 교육을 위시하여 서비스 홍보 등을 뜻한다. 이는 학교교육을 통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 등을 통해서 정보화 사회에의 순응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거품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4. 정보화 사회의 해결문제

많은 사람들이 정보와 사회란 용어를 다양한 장소와 시기에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도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요소가 있다. 즉 정보화 사회 또는 멀티미디어 사회로 가면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가? 즉 많은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가? 정보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인간의 모습, 산업의 모습. 그리고 당연히 수반되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사회현상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로써,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요사이 는 주먹보다 키보드가 가깝다는 뜻으로 오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풍요로운 정보화 사회를 위해서!